

### 최형선 도 건설방재국장·박창수 농정국장 사의

#### 후임 인사 27일께 단행

최형선 도 건설방재국장과 박창수 농정국장이 20일 사직의사를 밝혔다.

최 국장과 박 국장은 정년이 각각 1년8개월, 2년4개월 남았지만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과 도정의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 용퇴를 결심하고, 이날 최 문순 지사에게 뜻을 전달했다.

최형선 국장은 “내년 정부예산 확보와 도 예산안 편성, 내년 시책 구상 등 원활한 도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어느 정도 처리한 것 같아 명퇴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박창수 국장은 “태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복구, FTA에 대응한 도내 농업 전략 등이 방향을 잡은 만큼, 도정에 보다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명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후임 인사는 빠르면 오는 27일께 단행될 예정이다. 건설방재국장으로는 남동진 지역도시과장이 유력하다. 농정국장에는 최종근 감자종자진흥원장과 석성균 농식품유통과장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 ◇정동기 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21일 오전 11시 도회 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

### 부실 건설업체 퇴출 조사 국토부 이달부터 단속

정부가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부실·불법업체를 뿌리 뽑아 건설시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이달 말부터 각 지자체와 함께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불법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싼값에 하도급해 부실공사,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남궁창성

### • 경제인 동정 •



◇정동기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21일 도회 회의실에서 제5차 운영위원회

원회의를 열고 당면사항을 협의한다.